

의과대학 통합적 학생지원체계를 위한 유급위기학생 초기상담 제언

장경주¹ · 구유진² · 이경민³ · 이재호⁴ · 배재훈⁵¹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지원센터, 연구강사, ²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조교, ³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석사과정 학생,⁴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및 의료인문학교실, 부교수, ⁵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및 의료인문학교실, 교수

Suggestion for Initial Counseling for Students at Risk of Grade Repetition for Integrated Student Support System in Medical School

Kyung-Ju Jang¹ · Yu-Jin Ku² · Gyeong-Min Lee³ · Jae-Ho Lee⁴ · Jae-Hoon Bae⁵¹Research Faculty, Student Support Center,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²Teacher's Assistant,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³Master's Student,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⁴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natomy and Medical Humanities,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⁵Professor, Department of Physiology and Medical Humanities,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urpose : The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recommends expanding specialized student support services for students who must remain in the same class for another year and emphasizes the need to clearly describe the support available for these students.

Methods : Each medical school provides support for students' school life, academics, career development, and more through student support organizations. However, problems related to grade repetition are currently confined to institutional mechanisms. In this context,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and integrated counseling management system for students at risk of grade repetition.

Results : This study presents cases of the application of initial counseling designs for students facing academic difficulties, discussing the counseling approaches to support them. The initial counseling aims to gather foundational data for educational counseling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The content consists of the student's primary concerns, academic support areas, and assessment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incorporating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data.

Conclusion : The counseling approaches to support students at risk of grade repetition, as discussed in the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supporting them in addressing their isolation issues. Second, strengthening their self-efficacy. Third, helping them to overcome the disconnection with campus resources. For these, medical education needs to shift the perception of grade repetition from an individual to the area of student support. This study's contribution i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educational counseling focused on grade repetition support and academic counseling. This may serve as a guideline for students and professors to address academic improvement.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the necessity of grade repetition support and its approaches as an area of student support, ultimately supplementing the student guidance system and promoting student welfare.

Keywords: Counseling for students at risk of grade repetition, Grade repetition support, Initial counseling, Student support system

핵심어: 유급위기학생 상담, 유급지원, 초기상담, 학생지원체계

Corresponding author
Jae-Hoon Bae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42601, Korea
Tel: +82-53-258-7421
E-mail: jhbae@dsmc.or.kr

Received: 2024.05.04.

Revised: 2024.09.30.

Accepted: 2024.11.13.

서론

국내 대학들에서는 학생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격 성장과 함께 학문적 지식의 응용 방법을 습득하도록 다양한 활동과 프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지원은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 학생들의 자립 기반을 위한 것으로, 학생지원을 위한 교육 활동은 대학생들의 교내학급 활동에 직접 연관된 활동과 교육 활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록 지원하는 활동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¹.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대학 평가 기준에 따라 교수-학습센터를 설립하고, 학생지원센터 등의 여러 명칭으로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지원 영역에서는 학업지원, 취업지원, 학생상담 등 학업 및 진로상담, 개인 및 집단상담 등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자기개발 영역을 지원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졸업 이후 성숙한 의료인이자 사회인으로서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². 이에 의과대학 학생지원기관에서는 학교 생활의 외적 및 환경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고자 학생 생활실태조사 및 학생 심리검사를 통하여 대학 생활과 관련된 거주 상태, 경제적 여건, 학업과 관련된 물리적 상황, 교환경역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³. 또한 학생 개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의대생의 학업 문제, 진로 및 개인의 고충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학생지도 체제와 학생복지 및 안정에 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학생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 분야인 학습, 생활, 진로 영역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의과대학들은 학생지원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⁴. 학생지원 영역 중에서도 의과대학생들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학업 관련 문제이다. 의학교육과정에서의 과도한 학업량은 학생들에게 과중한 스트레스이며, 특히 학과 성적과 관련된 유급은 학생들의 주요 고충이다.

의과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정신건강 위기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과중한 학업량, 지속되는 시험, 유급에 대한 압박감 등은 의

과대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었으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보이듯 의대생들이 타전공 학생들보다 60% 이상의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³⁻⁶. 또한 국내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희망하는 학생 비율이 36%를 차지하였다. 10명 중 1명이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자살을 계획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4.4%,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2.2%라고 보고하였다⁷.

국내 의과대학의 유급률은 입학생의 10~15% 내외이며, 국외 유급률도 10~15% 정도로 거의 같은 정도로 보고하고 있다^{8,9}. 최근 공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학사경고율은 재학생의 7~8% 내외이지만, 학사경고로 인한 중도탈락률은 재학생의 4.9%이다^{10,11}. 이들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의과대학생의 유급 발생률은 일반대학의 학사경고 및 중도탈락자의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유급학생들의 재유급률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급 경험으로 인한 학업과 시험에 대한 불안감, 학업 실패로 인한 부정 정서는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서도 수동적인 태도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¹². 이에 국내·외 의과대학의 학생지원기관에서는 학생지원 영역 중에서도 학업 지도 및 지원을 주안점으로 두고 학업관리 피드백, 코칭, 튜터링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외의 각 의과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급 및 유급위기학생 지원 실태에 관한 내용은 Table 1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의과대학의 유급학생지원 관련 연구들에서는 유급생 실태, 예측 요인과 같은 단편적인 연구들이 대다수이다. 의과대학은 유급이라는 제도적 장치에만 의지하고 있을 뿐 실제 유급생은

Table 1. The study on the status of support for Medical School students at academic risk

Authors	Year	Title	Student support
Winston KA et al.	2010	An investigation into the design and effectiveness of a mandatory cognitive skills programme for at risk medical students	A cognitive skills programme
Stegers-Jager KM et al.	2013	The effect of a short integrated study skills programme for first-year medical students at risk of failure: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A short integrated study skills programme
Miller CJ	2014	Implementation of a study skills program for entering at-risk medical students	A Summer Prematriculation Program
Winston KA et al.	2014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Failure: An Early Intervention to Assist At-Risk Medical Students	A series of large-group workshops and small-group follow-up meetings
Patel R et al.	2015	The struggling student: a thematic analysis from the self-regulated learning perspective	Reflective self-regulatory learning
Jang I	2016	The Failure Experiences of Medical Students and the Process of their Adaption	Individualized deep-interviews and a pastoral counseling model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최근 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유급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과 유급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지원 영역의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지도 체제와 학생복지와 안녕의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의과대학의 통합적인 학생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학업지원을 위한 교육상담의 기초자료로서 일개 대학의 유급위기학생의 초기상담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유급위기학생들의 초기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의 주된 문제 요인 분석과 학업적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복지와 안녕, 학생지도의 통합적인 학생지원체계를 위한 유급위기학생 지원방안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배경 및 설계

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이 실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업·심리·진로개발 영역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지도 분야를 학습, 생활, 진로 영역으로 나누고 관련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적으로 학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의과대학의 학생지원과 관련된 평가 영역은 ‘학생’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ASK2019) 학생지원 관련 평가를 살펴보면 ‘학생지도 체계’는 ‘학생 지도 체계의 적절성’, ‘전문적 운영, 학습 지도 내용의 적절성’, ‘학칙에 따른 학습평가, 유급, 졸업사정 등 시행’, ‘생활지도 내용의 적절성’, ‘진로지도 내용의 적절성’, ‘교내·외 전문활동 권장과 지도와 지원의 적절성’ 총 6항목으로 구분되며, ‘학생복지와 안녕’은 ‘학생 상담 체계의 적절성’으로 두 영역이 총 7가지의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연구자가 소속된 의과대학 학생지원기관에서는 유급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을 구체화하고자 학생지원 체계에 관한 한국의

학교육평가원(ASK2019) 기준에 따라 기준에 진행되었던 학생상담체계를 세분화했다. 기존의 학생상담을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 교육상담과 심리상담을 구분함으로써 학생의 주요 어려움인 학업 지도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학생지원기관에서는 유급위기학생에게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의과대학 내 학생지원기관과 행정팀 간의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내 심리상담과 교육상담 조직인 학년담임교수·책임교수·지도교수와 학생과의 연계를 통한 학생지도 및 학생상담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Fig. 1).

유급위기학생 초기상담을 위한 이론적 적용은 ‘접촉’과 ‘알아차림’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 계슈탈트 치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현상학적 접근법 중 하나인 계슈탈트 치료는 ‘지금-여기’에서의 체험과 ‘나-너’의 대화적 경험은 현재 자신의 신체, 욕구 그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게 하고 대립된 심리적 기능을 만나도록 돕는다¹³. 또한 계슈탈트 이론에 근거한 유급위기학생 상담은 선행연구에서도 밝히듯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삶에 대한 실천적 태도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학업의 문제 요인을 파악하고 능동적인 참여로 학업적 위기를 개선할 수 있게 한다¹⁴. 본 연구자는 앞선 연구의 이론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유급위기에 처해있는 학생들이 지금-여기에서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현상학적 접근방법이 기존의 학생복지와 관련된 사회·심리 상담의 지지 상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판단하였다.

계슈탈트 치료를 기반으로 유급위기학생의 초기상담은 상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계슈탈트 이론에 근거한 상담자의 역할은 유급위기학생이 대화적 관계 경험을 통하여 지금-여기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어려움과 현상을 알아차리도록 돕는 것이며 또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자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¹⁵. 초기상담에서 상담자는 유급위기학생이 대화적 관계 경험을 통하여 지금-여기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어려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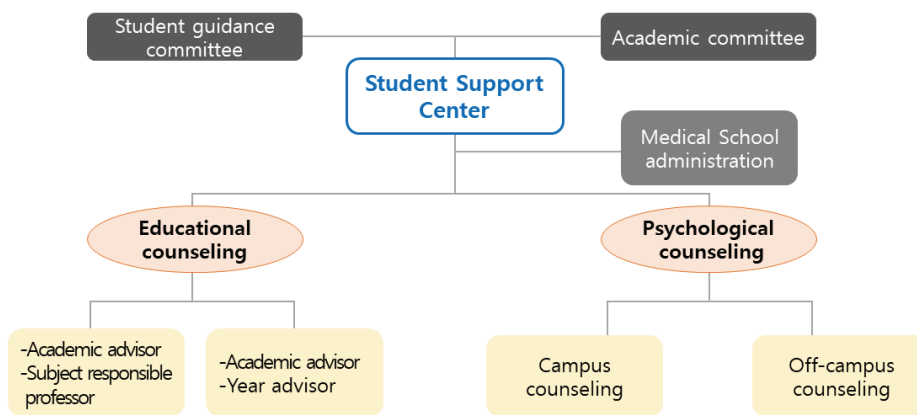


Fig. 1. A part of a model of the consultation system of a medical college

현상을 알아차리도록 돕고,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자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급위기 학생 초기상담은 학생지원센터 내의 상담 전문가가 담당하였으며 상담의 구조화를 통하여 비밀유지, 내담자의 안전 및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초기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전체 상담 과정을 안내할 뿐 아니라, 안전한 대상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의 현재 문제를 자각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 지원 관계를 토대로 학생의 내재적·외재적 자원을 발견케 함으로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케 하는 것이 상담자의 주요한 역할이다.

2. 유급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초기상담 사례

1) 초기상담 사례 대상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과정들을 경험한 대상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대상자는 학생지원 차원에서 특정 경험을 가진 대상자로서 특히 학업위기극복을 위한 초기상담의 필요성에 따라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학기 중간의 성적 결과에 따라 각 교과 책임교수와 부교수의 피드백으로 표집되었으며 학습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초기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학생지원센터의 담당 교원을 통하여 미리 개별적으로 유급위기 등 학업 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였고 해당 초기상담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유급위기학생(의예과 2학년 5명, 의학과 1학년 4명, 의학과 2학년 3명) 총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학생지원센터에서는 담당 교원을 통하여 상담 전, 학업 관련 문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였고 초기상담에 관한 내용도 안내하였다. 초기상담은 학생의 자발적 참여자 구성으로 이루어졌고, 단회기 집단상담은 학생지원센터 내의 상담실에서 40분~50분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총 12명의 연구대상자 중, 초기상담 내용을 충실히 답을 수 있는 총 5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집단상담 시작하기 전, 연구에 관한 사항은 상세한 안내와 동의 과정을 거쳤으며 학생의 학업지원 요청 여부에 따라 상담 내용의 공개 여부를 학생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2) 초기상담 설계 및 사례

이 연구에서 제시한 유급위기학생 초기상담 사례는 의과대학의 유급학생 관리를 위한 초기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유급위기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일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유급위기학생대상의 초기상담 사례를 통하여 학생상담과 학업지원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유급학생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가 소속된 의과대학의 학생지원기관에서는 유급위

기학생의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상담체계를 구조화하였다. 의과대학 내 학생지원센터와 행정팀 간의 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내 상담, 즉 심리상담 및 교육상담의 학년담임교수·책임교수·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학업 지원과 상담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담체계를 설계하였다.

초기상담은 유급위기대상의 시기적절한 지원과 특히 학생복지와 안녕, 학생지도의 통합적으로 지원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집된 유급위기학생의 심리·사회·학업·진로 등의 주요 문제에 관한 종합자료로 학생-교수의 교육상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의과대학이 실시한 학생지원 욕구 조사에 의하면, 의대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로 분석되었다¹⁶.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생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기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첫째, 학생의 진로와 학업 및 심리·사회적 문제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학업지원 영역으로서 학생-교수 면담, 학습코칭, 멘토링 등의 교육상담 및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생상담과 학업지원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유급위기 지원을 위한 학생상담의 초기상담은 구조화된 설문지와 비구조화 상담으로 구성되며 동시적,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유급위기학생을 위한 초기면담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이다. 자유로운 진술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학업의 문제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비구조화된 질문은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도록 한다. 둘째, 학업지원 영역의 자발적 선택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지원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구조화된 설문지 작성을 통하여 학업 문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처럼 유급위기학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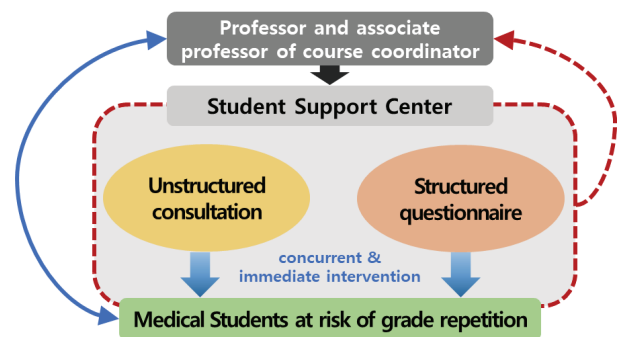


Fig. 2. Design of Initial Counseling Support System

초기상담은 1) 학생의 주 호소문 2) 학업지원 영역의 선택 3) 자기주도학습능력 설문지 통하여 학업 문제에 관한 학생의 주관적 자료와 표준화된 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학생상담과 학업지원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유급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초기상담 사례 분석은 Table 2와 같다.

위의 유급위기학생의 초기상담 사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 진솔한 것이다. 상담에서의 자기진술은 현재의 주요 고충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학업과 관련된 주요 핵심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유급위기학생 초기상담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술을 통하여 주요 문제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학년 대표를 맡으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 같아요.”

유급학생의 이러한 자기진술은 학생 스스로 학업의 영향에 미친 현재의 문제 요인을 살피고, 이를 언어화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점, 대인관계의 어려움,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 자신이 처한 환경과 이로 인한 본인의 불편한 정동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자기진술 과정을 통하여 학업에 몰두할 수 없는 점이 학습의 문제인지, 동료와 이성의 문제인지, 정서적 불일치 및 가치관의 차이 등의 문제인지를 자기관찰적 시점에서 재고하게 한다¹⁷.

두 번째로 학업지원 영역의 자발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초기상담에서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자신의 문제를 진술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도록 도움을 주는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영역인 멘토링, 튜터링, 코칭, 진로코칭, 개인상담, 기타[부록 1]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기상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자와 학생의 진솔한 대화적 경험은 돌봄적 관계를 기초로 학생의 자기수용, 문제 인식, 자기 책임감을 경험하게 한다. 이에 학생은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 성장에 필요한 욕구를 발견하고 체험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제안하게 된다¹⁸. 이러한 대화적 관계 경험은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게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또한 초기상담에서의 학업 증진 프로그램의 자발적 선택은 학생 스스로가 창의적 행동을 시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간직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상담을 위해 초기상담시 자기주도학습능력 검사 설문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초기상담에서는 학습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self-directed learning ability)이란 학습자 스스로가 자기주도성을 갖고 인

Table 2. Cases of initial counseling for students at risk of grade repetition

No.	Name	Self-disclosure	Areas for improvement	Summary
1	○○○	“I have trouble concentrating.”	academic achievement management continuity of learning learning environment	Difficulty with concentration has been expressed, and there is a need for academic management, such as learning methods and strategies. Seeking coaching assistance for this.
2	○○○	“I think games are the distracting factor.”	utilization of resources in learning continuity of learning motivation for learning	Spending 3 to 4 hours gaming daily, along with resulting lack of sleep, has made concentrating in classes difficult and disrupted his daily routine. Therefore, creating a better learning environment, especially focusing on time management and self-care, is crucial.
3	○○○	“I sleep late because of my roommate’s snoring, so I get less sleep.”	academic achievement management learning process management utilization of resources in learning	As daily routines are disrupted, temporary learning difficulties may arise, indicating a need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4	○○○	“I feel like I’ve become lazy.”	continuity of learning utilization of resources in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management	A change in learning attitude is necessary. While he is aware of his issues, efforts are required to improve them, particularly in terms of academic planning and execution skills.
5	○○○	“I’ve faced challenges in my studies due to the stresses of being a class representative.”	motivation for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management continuity of learning	The stress of unexpectedly becoming the class representative seems to have weakened motivation for learning. External support from peers, supportive relationships, and coaching is needed to address this.

지,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¹⁹. 이 자기주도학습능력의 7가지 하위 영역으로는 학습과정 관리, 학습결과 평가, 학습동기, 자아개념, 학습활동 지속성, 학습자원 이용관리, 학습환경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의 분석 자료는 학생들의 학업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이 도출되므로 학생의 학업 문제 개선을 위한 학생-교수의 면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고 찰

의과대학에서는 현재 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유급제도와 함께 유급위기학생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제나 학생상담실, 동료지원, 대학의 내·외부지원체계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지원 방법들은 학생과 지도교수와의 접촉의 어려움, 형식적인 면담,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 등의 이유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의과대학의 유급지원 실태를 통해 알 수 있듯 기존의 제도 장치만으로 학업 및 유급지원이 적절히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학생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학생의 진로와 학업 및 심리·사회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학생지도 영역인 학생-교수 면담, 학습코칭, 멘토링 등의 교육상담 및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연계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학생상담과 학업지원의 통합적 관점에서 유급위기 지원을 위한 학생상담, 즉 초기상담 사례 분석을 연구결과로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유급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초기상담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학생-교수 면담의 적극성을 독려함으로써 교육상담의 활성화를 통하여 의대생들의 유급 및 학업의 위기를 시기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통합적인 학생지원체계 설계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에서는 초기상담 사례 분석을 토대로 유급위기학생의 환경·개인특성·심리·사회·학업과 관련한 주요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의대생들의 유급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유급의 문제는 단순히 학습 부진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업 계획 및 방법, 학업 동기의 부족, 학생의 의지, 내재적 요인 등과 같은 정신적 동요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²⁰. 초기상담 사례에서도 의대생의 학업에 관한 문제는 학업 환경, 개별적 특성과 문제, 사회적·심리적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²¹. 그러므로 의과대학의 학생지원 기관에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학생지원을 통하여 기존의 학생지원체계의 순기능적 연결을 시도하고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자는 의과대학의 학생지원기관의 통합적인 학생지원체계를 위하여 유급위기학생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유급위기학생의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유급위기학생의 학업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문제와 만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급위기학생 지원의 첫 단계는 초기상담을 통하여 자신으로부터의 고립된 '자기'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수용과 인정의 단계를 경험함으로써 학생 스스로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상담 관계를 통한 대화적 경험은 자신으로부터 고립된 스스로를 만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자의 고립된 문제를 연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고립의 문제는 타자와 공동체의 단절로 이어진다. 학업지원 및 학생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하여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 그리고 교수자의 지지적 관계를 열어둠으로써 타자와의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기효능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²². 자기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학생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이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반응에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문화적 배경 및 한국 사회의 일등주의와 성공주의 신화 가운데 학생들의 학업 실패는 인생의 좌절감과 실패감으로 경험된다. 유급위기에 직면한 학생들은 교내 집단에서 그리고 가족 내에서 자기효능감의 상실, 수치감, 죄책감 등 심리적 곤경에 처해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에 유급위기 학생의 초기상담은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저하된 학생을 독려하고 교내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여 학업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초기상담에서의 상담자의 역할을 통한 관계 내에서의 지지적 경험, 긍정적인 자기신념, 정서적 환기를 통한 긍정적 정서의 경험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학업성취를 위한 동료, 교수의 지원제도 즉 교내 자원의 순기능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의학교육에서는 유급에 관한 개인적인 문제의 관점에서 학생지원영역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유급'이 학업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내의 지원제도 및 자원과의 연결을 통하여 학생지원 영역으로서 유급 및 학업 지원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유급위기로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학생상담 및 학업 관련 문제들에 관한 학생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과대학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유급위기학생의 통합

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기상담과 같은 지원 체계를 통하여 학업 관련 내·외적 문제 요인을 발견하고 촉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통합적 학생지원체계를 구축을 위한 유급학생의 초기상담을 제언하는 바이다. 통합적 학생지원 방안으로서 초기상담은 유급학생의 개별적 어려움을 돕고, 학생의 학업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학생지도 및 교육상담이 시기적절하게 실행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유급위기학생의 학생복지와 안녕, 학생지도와 관련된 통합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의과대학의 제도적 장치에 머물렀던 학습, 생활, 진로 영역인 학생지도 분야를 실제적인 학생지원 영역에 포함하기 위한 시도로써 통합적 학생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일개 대학에서 진행한 유급학생 초기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급위기학생 지원방안을 고찰하여 유급위기학생의 통합적 지원으로써 초기상담을 제언하였다.

이번 연구의 의미와 기여점으로는 유급위기학생 지원의 필요성과 유급지원의 상담적 방안을 제시하여 학생지도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통합적인 관점에서 학생복지와 안녕, 학생지도를 지원하는 상담모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의 초기상담 학생지원 모델은 유급위기학생에게 자신의 문제요인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유급지원 프로그램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생성되고 모아진 유급위기학생 메타데이터는 기초자료로 다시 환류하여 기준에 갖추어진 교내 교육상담 및 학생지도 체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하여 유급학생 지원을 위한 학업 문제 개선 및 학업 계획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적 학생지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유급위기학생의 통합 지원체계를 위한 기초상담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로 일개 의과대학의 초기상담 사례만을 제시하였을 뿐 상담 효과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과정으로 유급대상의 초기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를 위해 다수의 상담 사례결과를 토대로 질적·양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유급위기학생의 초기상담 사례를 토대로 구조화된 상담과 비구조화된 상담의 비교분석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Kwon DB, Oh YG, Son JJ, Park HM, Song SH, Lee JY.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al Demand for University Student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1.

2. Choi YM. Review of Current Conditions of University and College Counseling Center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2012;33(2): 21-36.

3. Kim SK, Bae JH, Lee JH. Assessing Life Surveys of Medical Students and Need-Based Student Services. *KMER* 2022;24(3): 205-214.

4. Kim EK, Baek SY, Woo JS, Im SJ, Lee SH, Kam BS, Lee SY, Yun SJ. Group Counseling for Medical Students with Drop-Out Experiences. *Korean J Med Educ* 2013;25(1):23-28.

5. Guthrie EA, Black D, Shaw CM, Hamilton J, Creed FH, Tomenson B. Embarking upon a Medical Career: Psychological Morbidity in First Year Medical Students. *Med Educ* 1995;29(5): 337-341.

6. Hur YR, Lee KH. Analysis of medical students' enneagram personality types, stress, and developmental level. *Korean J Med Educ* 2011;23(3):175-184.

7. Yune SJ, Park KH, Chung WJ, Lee SY. The effects of attribution tendencies, academic stress, and coping efficacy on academic adjustment of 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c* 2011;23(3):167-174.

8. Yoon SD, Suk SJ, Park WH, Sonf JY. Analysis of Recent Failure Rates in Nationwide Medical Schools(1982-1986). Faculty Department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989;8(1): 212-222.

9. Lazin R, Neumann L. Student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drop-out from medical school: admissions to Beer-Sheva over a decade. *Med Educ* 1991;25(5):396-404.

10. Cheong YS, Yang JM. Exploratory Study on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Intention to Drop Out, Actual Dropout Status, and Re-entry: Focused on G National University. *Journal of Teaching & Learning research* 2024;17(1):33-60.

11. Roh SH, Lim MJ. Effects of Learn to You+ Comparative Program for After-School University Academic Warning Students. *The Journal of After-School Research* 2023;10(2):49-66.

12. Park J, Kang MG, R SY, Won YJ, Moon KR. Predictors of Failure in Medical Students. *Korean J Med Educ* 2009;21(2): 143-151.

13. Yontef G. Awareness, dialogue and process: essays on Gestalt therapy(Kim JK, Kim YJ, Sim JA, Trans.). Seoul: Hakjisa, 2008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93).

14. Jang. Ik. The Failure Experiences of Medical Students and the Process of their Adaption. [Ph.D. in dissertation]. Seoul: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16.

15. Ihde D. Experimental Phenomenology: An Introduc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York; 1977.

16. Kim EJ, Needs Analysis of Medical Student Support System in Medical School.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University, 2016.

17. Zinker J. Creative process in Gestalt Therapy. New York: Vintage Books; 1977.

18. Kim JK, Daniels V: Experimental Freedom. In: Handbook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in Gestalt Therapy. Edited by Brownell P: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07: 198-227.

19. Lee SC.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students' perceived family strengths, growth mindset,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h.D. in dissertation]. Seoul: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2019.
20. Shin HT.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Korean Medicine Students who have academic failure. *spkom* 2016;20(2):53-67.
21. Kim EK, Baek S, Woo JS, Im SJ, Lee SH, Kam B et al. Group Counseling for Medical Students with Drop-Out Experiences. *Korean J Med Educ* 2013;25(1):23-28.
22. Kim NH.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eacher efficacy and the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successful school life. [Master's dissertation]. Seoul: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2000.

